

계시록 15장

재앙이 닥친다!

15장은 16장에 대한 소개 부분이다. 즉 16장의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을 설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보여준다.

계시록에는 때때로 이해하거나 따라가기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 다시 말해 관련된 사건들이 항상 연대적 순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많은 경우에 전반적인 상황을 기술한 다음에 되돌아가 상세히 설명하고 앞서 설명했던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하기도 한다. 15장과 16장도 이런 경우이다. 즉 15장과 16장은 앞서 이미 설명한 사건들에 대해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장이라 할 수 있다.

계시록 1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14장에서도 다루어진다. 그러나 15장과 16장에 있는 사건들은 주의 재림이 있기 전에 일어나는 사건들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절한 이유로 이 땅에 곧 쏟아지게 될 하나님의 심판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통치하시기 바로 전에 세상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15장에는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나와 있고, 16장에는 그에 대응하여 대환난 기간에 세상에서 일어날 사건들이 묘사되어 있다. 이때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나라에 있을 것이다.

계시록 15:1-3

또 내가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15:1)

‘이적’이라는 단어는 ‘기사’나 ‘기적’을 의미한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사와 징조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했다. 이제 하늘에 또 다른 기적이 보인다.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이 세상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일곱 재앙으로 끝이 나고, 이로써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도 마치게 된다. 이것이 끝나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와 다시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아래 두실 것이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15:2)

하늘의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 바다’가 나타난다. 계시록 4장에서 요한은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었다고 말했다(4:6). 그런데 여기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다이다. 이것은 임박한 불 같은 재앙인 일곱 재앙을 예언하는 것이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15:2)

하늘 나라의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이들은 교회가 아니다. 아마도 계시록 7장에서 인치심을 받은 144,000 무리일 것이다. 이들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을 이길 것이며, 교회는 적그리스도를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교회가 들려올라가고, 막는 자가 제거되고 나서야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이다(살후2:3-8). 그리고 난 후 적그리스도는 온갖 기적과 속임수로 ‘택한 자’일지라도 속이며 많은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을 맺게 될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선 무리를 보게 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15:3)

이 말씀은 이 무리가 이스라엘의 144,000명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모세의 노래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에 관한 노래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이르렀을 때 물이 애굽 군대를 막아 대적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와 구원의 노래인 모세의 노래를 불렀던 것이다.(출15:1-21)

이 무리들은 그들의 대적인 적그리스도의 손아귀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은 노래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15:3)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의롭고 참되시다고 선언한 점을 주목하라. 하나님께서는 비할 데 없이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므로 공의에 도전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것처럼 행동한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하고 있는 144,000명은 “성도들의 왕이 공의로우시고 참되시다”라고 노래로서 선포하고 있다.

계시록 15:4-8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15:4)

어느 누가 와서 경배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만국이 다 그 분 앞에 나아와 경배한다. 그리스도는 만국을 다스리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하신다.(빌2:10-11)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cherubim, 천사)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15:5-8)

흥미로운 것은 하늘에 성전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세우게 하신 땅의 장막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었다. 거기에는 여러 마당과 성소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중앙에 있는 지성소, ‘시은좌’(mercy seat)가 있었다(히8:5).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손으로 만든 이 세상의 장막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한 속죄 제물로서 그분의 보혈을 바치시려고 하늘의 성전으로 들어가셨다.(히9:24)

이제 요한은 일곱 천사가 나오고 그룹이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일곱 금대접을 주는 것을 본다. 이 일곱 천사들은 16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들을 땅에 쏟아놓는다. 이 재앙들은 영광 중에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선 마지막 심판이다.

